

# 암울한 미래 막기 위해 미래의 암울함 드러낸 언어학자들의 시나리오



언어학자 시정곤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는 언어학에 관한 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소장 학자이다. 그는 '지금 한국어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힘의 논리가 배경이며, 여기서의 힘이란 경제적인 파워"라고 대답했다. 대개의 경우, 인문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주체성의 문제' 라거나 '교육제도의 문제' 를 내세우기 십상인데 시 교수는 에둘러 본질을 피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테면 인정할 것은 인정한 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타이므로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의 공동저자들은 이러한 시 교수의 인식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이 책의 공동집필에 나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교수를 제외한 네 사람은 이미 《우리말의 수수께끼》란 책을 공동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대중과 밀착할 수 있는 전문도서를 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아서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의 기획안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 수 있었습니까.”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은 영어공용화가 실시된다는 가정 아래 공용화 원년, 20년 후, 30년 후, 60년 후, 100년 후, 500년 후의 실상을 내다본 타임머신 속의 우울한 세상을 드러낸다. 이 타임머신은, 한글은 500년 후 완전히 사라지고, 500년 전 매설된 타임캡슐에서 특이한 문자형식이 들어 있는 한글 자료가 발굴되며, 연구조사를 거쳐 코리리어가 하나의 언어로 인정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은 우울하되 그 터치는 가상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으며, 작금의 '기러기 아빠 양산 사회' 와 함께 이들 언어학자들의 예상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현실감을 가져다 준다. 이런 작업을 한 배경에는 민족고유어의 중요성과 언어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다국적어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이들의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실제로 영어공용화가 실시된다면 현실적 필요에 의해 한국어는 거의 실종될 것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화충돌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줘야 한다는 데 저자들은 합의한 것이다.

“사실,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둔 두 번째 공동저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영어 공용화가 실시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원고를 모아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냈더니 모두들 무릎을 치더군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이었죠.”

시 교수를 비롯 다섯 명의 저자는 1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술한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영어공용화가 시작된 후의 실상을 분담해 가상 시나리오화하다 보니 원고의 일부를 뒤로 배치하거나 앞으로 배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들 다섯 명이 모두 고려대 동문이어서 '나무랄 데 없는 팀워크'

가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시 교수는 말했다.

“영어공용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영어가 득세의 수단이 된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가치기준이 강대국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걸 허겁지겁 따라가려다 보니 한국어의 위상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실 국어학자나 한글학자의 책임도 큼니다. 우리 사회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는 건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나 자신은 국어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왔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란 민족정신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는 민족의 창이라고 합니다만, 영어공용화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학생의 질문을 받았을 때 금세 답을 못했습니다. 나 역시 한국어의 현실에 대해 관념적 애정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었죠.”

시 교수는 그러나 언어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서는 다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386세대의 학자에 속한다. 그는 우선 채팅언어가 한글의 기본꼴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꽤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인터넷 채팅은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채팅용어는 말이기 때문에 구어체 형식을 띠면서 일부나마 형태과피적인 요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화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문어체로 대화를 했지만 전화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구어체가 활성화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외계인 언어’로 불리는 채팅용어 등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그런 현상을 분석하는 일을 학자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글쓰기는 역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된다는 것이 시 교수가 지닌 ‘개방형 사고’의 일단이다. 영어공용화에 당연히 반대하는, 그러면서도 ‘한글에 대한 정보조차 영어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보수적 인문학자로서의 진보성인 셈이다.

이번 책을 공동저술하는 데는 영문학자 장영준 씨도 참여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점이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너무 극단적인 예단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판은 달게 받을 각오지요. 그렇지만 대만의 영어공용화 추진 자료를 비롯 풍부한 자료를 통해 우리의 위기진단이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시 교수를 비롯 5명의 저자는 이 책에 한국어를 둘러싼 논쟁자료를 포함 유학열풍, 모 대학총장의 ‘교내 영어공용화 추진’, 제주도의 ‘영어마을’ 조성 시도 등의 자료를 동원해 국제화라는 구호 아래 알게 모르게 ‘한국어를 압박’ 하는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 교수는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한글의 과학화 등에 꽤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하며 우리말의 장래가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고, 다른 필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작업을 위해 뒤로 미룬 한글의 소리와 어휘에 관한 공동작업에 다시 나설 예정이어서 소장학자 5인방의 도발적인 다음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

취재 임동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